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금주 미사 독서: 조현상 그레고리오, 이승환 안드레아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다음 주 미사 독서: 김태진 하상바오로, 김예중 안나마리아	봉헌금 : \$178
금주 미사 복사: 윤지희 데레사	합계 : \$178
다음 주 미사 복사: 김지원 카린	봉헌봉사:
금주 미사해설: 김지원 카린	최고은 소피아
다음주 미사해설: 우명희 카타리나	다음주 봉헌봉사: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김보미 로사
회 계: 심윤필 베르나르도, 한진 베드로	* 매월 마지막 주는
친교실 정리: 1 구역	2 차헌금이 있습니다.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친교 / 간식 모임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사제관 (8월 24일)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다음 기도모임 9월 첫주 금요일(장소 계시관 참고)
교리 모임	격주 토요일 오후 2시 45분 성당친교실 (8월 18일)
기타 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8시 홍진국 클레멘스 형제님집 (8월 17일)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사막을 유랑하던 시절 굶주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 불평하며 떠난 이집트 생활을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만나를 내려 주시어 그들의 배를 채워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막을 헤매면서 만나로 배고픔을 달랜 옛 시절을 잊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서 먹었던 만나와 당신 자신을 비교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이 배고픔을 달래 주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인 당신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주장은 유대인들을 무척 자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으로 많은 군중을 먹이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빵의 기적을 표징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굶주린 배를 채운 것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순전히 물질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배고픔이 채워지면 그것을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지상의 양식에만 관심을 두면 하느님의 생명과 단절됩니다. 유한한 것의 노예로 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천상의 양식을 바라고 그것을 먹고 살면 비록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더라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생명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영원히 살 수도 있습니다. 무와 영원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주임 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거주사제 유성모 요셉
(608) 293-1114
사목회장 김태진 하상바오로
(608) 628-7977

연중 제 19 주일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ccm
Facebook 그룹
매디슨한인천주교회
E-mail
kccmwi@gmail.com

2012년 8월 11일

<제 1 독서> 열왕기 상권 19,4-8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4,30-5,2

화답송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
○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둘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41-51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쁨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오늘의 성가] 시작: 49 봉헌: 511 성체: 166 파견: 259



너희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최인호 베드로 | 작가

최민순 신부님이 지은 ‘두메꽃’이란 시를 처음으로 본 것은 1994년 1월. 이한택 주교님의 지도로 한 달간 성이냐시오의 영성수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예수회 신학생들과 피정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기숙사 로비 벽면에 걸려있는 ‘두메꽃’이란 시를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두메꽃’을 또다시 만나게 된 것은 배론성지에 있는 피정의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 꽃밭 위 석비에 새겨진 시의 전문을 발견하게 된 이후였습니다. “외팔고 높은 산 골짜구니에 / 살고

싫어라 / 한 송이 꽃으로 살고 싶어라 // 벌 나비 그림자 비치지 않는 / 첩첩산중에 / 값없는 꽃으로 살고 싶어라 // 햇님만 내 님만보신다면야 / 평생 이대로 / 숨어 숨어서 피고 싶어라.”

이따금 배론성지의 피정의 집 ‘두메꽃’에 갈 때마다 저는 신부님의 시를 하루에도 몇 번씩 읽고, 외우면서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곤 합니다. 지금껏 제가 살아온 인생은 ‘두메꽃’과는 정 반대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외팔고 높은 산 골짜구니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로 들끓는 도시의 광장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벌에게 인정받고 나비에게 돋보이려고 기를 쓰고 있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집중되는 스포트라이트가 조금이라도 빗겨가면 약삭같이 그 화제의 중심에 다시 서려 하였으며, 매스컴에 이름이 끊임 없이 호출되어야만 출석부를 체크한 학생처럼 마음이 높았고, 항상 저에 대한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온갖 찬탄과 박수소리, 선망의 시선에서 멀어진다 싶으면 불안하고 소외감을 느꼈던 전형적인 속물적인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세속적인 성공은 거둬서 한때 ‘성공시대’란 프로그램에서 출연요청을 받기도 했으며, 지금은 암과의 투병이 뉴스적 밸류(?)를 더 상승시켰는지 특집프로그램 같은 데서 집요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40일간 단식하셨을 때 악마가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사이에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며 “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루카 4,6)라고 유혹합니다. 악마는 ‘저 화려한 권력과 명예는 자기가 받은 것’이라고 단언하고 ‘만일 내 앞에 엎드려 절한 하면 모두가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이지요.’라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얻은 세속의 명예와 화려한 영광은 악마에게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했던 우상 숭배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유하고 세속적인 권력과 육체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몸짱에 대한 열망, 병적인 성형중독, 미모지상주의, 출세, 타인을 지배하는 힘, 명품, 쾌락, 낙태, 지나친 건강의 추구, 웰빙, 독점적 권력, 식탐, 극단적 이기주의, 중독(거짓말, 섹스, 약물, 알코올), 약의, 담욕과 교만,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미신 등… 이 모든 것은 물신(物神)의 소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편은 미워하고 다른 편은 사랑하거나, 한편은 존중하고 다른 편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마태 6,24)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진실로 하느님을 섬기는 가톨릭 신자라면 재물을 버리고 두메꽃처럼 ‘값없는 꽃’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햇님(하느님)만 보신다면야 숨어서 핀다 한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가치관은 지상의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고, 배불리 먹고 지내는 사람 보다 굶주린 사람이 더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보다 미움 받고 쫓기고 박해 받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크다.(루카 6,20-26 참조)」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값없는 꽃」의 절대 가치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아, 제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외팔고 높은 산 골짜구니’에서 ‘두메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저로 하여금 끊임없이 ‘유혹하는 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성서에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라고 하시지 않았느냐?”(마태 4,10)라고 외칠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빛의 갑옷(로마 13,12)」을 입혀주소서.(성경 인용은 공동번역 성서입니다.)

✝ 공지사항

1. 매디슨 공동체 안내문을 제작하였습니다. 성당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2. 제 18 대 대통령 재외선거 등록신청 안내
 - 기간: 7 월 22 일~ 10 월 20 일
 - 국외부재자 우편신청, 재외선거인 방문신청
 - 주 시카고 총영사관 홈페이지 참조



영원한 생명 안에서 마음껏 누리

문종원 베드로 신부 | 구로 2 동성당 주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요한 6,51) 하느님은 당신 자녀들인 우리들이 배고프거나 목마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지금, 미래 그리고 영원히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 안으로 초대하며 영원한 생명 안에서 마음껏 누리길 바라십니다. 다른 말로, 근심 걱정애 사로잡히거나 불안에 떨지 말고 평화 속에 머물기를 바라십니다. 근심은 ‘책임, 공포 등을 느끼는 감정’, ‘관심, 애정을 갖고 있는 사물, 사람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 ‘불안한 상태’, ‘마음이 괴로운 상태’ 등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영의 상태는 근심하거나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마음으로 머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과 같이 썩지 않는 것으로, 마음속에 감추어진 자신을 치장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느님 앞에서 귀중한 것입니다.”(1 베드 3,4).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 즐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즐길 수 없을 겁니다.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긴장을 풀고 삶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샘에서 물이 솟아 흐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 샘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흙을 파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처럼 내면에 있는 기쁨을 끌어 올리는 것은 웃음과 노래와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쏟아져 나오는’ 기쁨을 맛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8 장 24 절은 말합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 우리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요한 복음 16 장 33 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필립보서 4 장 4 절에서 사도 바오로는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바오로 사도는 부정적 태도, 곧 화와 원한과 서러움을 품을 수 있었지만 늘 기뻐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기뻐하고 찬미하는 건강한 태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로마 8,18) 또한 고난을 그리스도와 내밀한 관계를 맺는 기회로 여기며 기쁨으로 극복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골로 1,24)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도 여러분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1 베드 4,13)너무 긴장하지 마시다. 가벼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비우십시오. 삶을 즐겁게 사십시오.